

“저수지 준설”에 대한 현장의 소리

구 본 총

(bckhu@hanmaik.net)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

지금은 신규로 저수지나 댐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여건이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토지가격 상승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저수지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 여건과 환경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저수지(댐)의 신설이나 보강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1990년대 이전 개발시대에 비하여 자연환경문제, 토지가격 상승 및 토지이용 문제, 민원 등 사회적 여건으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사회적 동의나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힘든 사회 환경이 되었다.

게다가 농업용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리답율도 80% 정도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논(쌀)농업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농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도 점차 낮아져 농업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은 물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및 재해영향, 세계 식량수급 불균형과 식량 무기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800,000ha 이상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 등 생산기반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기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용수개발은 저수지, 양수장, 보, 지하수, 담수호 등 다양한 수원공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물을 절약하는 영농법과 농업인의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저수지 등의 수원공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상 또는 경제성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저수지의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용수절약, 용수재이용시스템 등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 방안으로 저수지 준설과 보강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하나로 저수지 준설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18,000여개소 저수지의 대부분은 1980년대 이전에 설치된 소규모 저수지로 당초 설치당시의 기준으로 단위저수량이 300~400mm/ha에 불과하여 영농패턴 변화, 벼품종 개량, 조기이앙 등 농업여건변동으로 물 소비량이 많아지고 물 사용 시기도 집중되어 최근에는 800~900mm/ha까지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저수지의 단위 저수량은 현재의 기준에 비하여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못자리 용수도 모자라는 저수지도 상당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현행 저수지 준설 대상지 선정기준에는 설계(유효)저수량의 20% 이상 감소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물이 모자라는 저수지라 할지라도 당초 설계 저수량에 비하여 퇴적량이 적은 저수지가 많은데도 단순히 '설계 저수량의 20% 감소'라는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준설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설계(유효) 저수량의 20% 이상 감소 또는 퇴적'이라는 준설대상지 선정기준은 당초 설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근의 수문 기상자료에 의한 수문분석을 기초로 하는 현재의 수문기준에 준하여 필요 저수량을 다시 산정하여 실제로 물이 필요한 '필요 저수량의 20% 이상 감소

또는 퇴적' 저수지로 대상지 선정기준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저수지 신설 및 확장·보강개발은 사회여건의 변동 등으로 어려운 실정으므로 기존 저수지의 이용도 제고와 수자원 활용도 제고, 다목적 용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용수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저수지에 대한 수문분석을 전반적으로 재실시하여 최근의 수문기상자료에 의한 정확한 단위 저수량을 산정하고 관련 저수지의 관개 면적에 필요한 저수량을 산정하여 저수지 준설사업의 기준, 보강개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저수지 준설은 단순히 저수지 퇴적량을 준설하여 당초 설계 저수량으로의 환원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관개면적에 필요한 저수량 확보와 수질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심지역의 저수지는 각종 오니, 쓰레기들이 유입 퇴적되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저수지 준설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